



타 업종과의 협업을 통한 하나카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와 협업한 '금쪽이 영하나플러스 체크카드'와 '이디야 하나카드 프리덤', '메디큐브 하나카드' (왼쪽부터).

혜택 큰 '금쪽이 체크카드' 2세대에 딱!

채널A 인기 육아 예능 프로와 협업 대중교통·편의점 등서 파격 캐시백 이디야 50% 청구 할인 'PLCC' 인기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와도 손잡아



이석 하나카드 그룹장,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조남희 코나아이 이사(왼쪽부터)가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카드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커피전문점, 뷰티업체 등 타 업종과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나섰다.

먼저 채널A의 인기 육아 예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와 협업한 '금쪽이 영하나플러스 체크카드'가 눈에 띈다.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는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육아 고민을 듣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방송 중이다.

'금쪽이 영하나플러스 체크카드'는 프로그램 메인 캐릭터인 코끼리를 모티브로 한 '금쪽이' 디자인을 카드 플레이트에 담았다. 어디서든 바로고 착실한 '금쪽이'와 자유롭고 개성있는 '후쪽이'의 콘셉트로 제작했으며, 카드 신청 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또 출시를 기념해 3월 말까지 금쪽이와 후쪽이의 귀여운 캐릭터가 담긴 스티커 3종 세트도 선착순 지급한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체크카드 이용률이 높은 사회 초년생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혜택을 담았다.

편의점, 배달서비스, 카페, 모바일 간편페이 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혜택을 보면 모든페이결제 실적 제한 없이 0.5% 캐시백, 커피 영역 20% 최대 4000원 캐시백, 배달서비스·대중교통·편의점에서 최대 4000원 캐시백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이 60만 원 이상 시 최대 2만 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연회비는 없으며 하나는 행 전 영업점, 하나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하나원큐페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윤아 하나카드 체크셀 주임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Z세대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았다"며 "채널A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캐릭터인 '금쪽이'와 협업 상품

을 내놓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디야커피·메디큐브 PLCC도 인기

타 업종과 협업한 사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도 인기다. 이디야커피와 손잡고 선보인 '이디야 하나카드 프리덤'이 대표적이다. 발급 월부터 1년 간 매월 5000원 상당의 이디야 멤버스 쿠폰을 실적 조건 없이 무상 제공한다. 이 카드를 하나원큐페이에 등록 후 이디야커피 가맹점에서 결제 시 50% 청구 할인되며, 다른 결제 방식으로 결제 시에도 20% 청구 할인이 제공된다.

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결제 시 30% 청구 할인과 대중교통 결제 시 5%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자인은 2030 MZ세

대 고객과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총 5가지 플레이트로 제작했다.

또 에이피알의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와 손잡고 '메디큐브 하나카드'를 선보였다. 전월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에이피알 브랜드 온라인 공식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최대 10% 청구할인(월 할인 한도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디야커피를 찾는 고객에게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메디큐브의 경우, MZ세대 고객의 인지도와 구매력이 높아 특화 할인카드를 선보였다"며 "향후 고객의 구매성향에 맞춰 실질적인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결제 플랫폼 업체 코나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나아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의 카드결제 프로세스 업무대행과 코나아이 고객 전용 신용카드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또 하나원큐페이앱에 코나아이 선불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코나아이의 모바일리티 서비스를 하나원큐페이앱과 연계해 배달 및 택시 호출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는 "코나아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여는 신규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용구 신한은행장, 건강 문제로 사임

치료 장기화...취임 한 달 만에 물러나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건강 문제로 취임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신한금융은 6일 한 행장이 지난주 건강상의 사유로 은행장 사임의 뜻을 전했다. 한 행장은 "치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불확실성이 가

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흔들림 없는 영업전략 추진을 위해 빠르게 결심했다"고 했다. 한 행장의 사퇴에 따라 신한금융은 빠른 시일 내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후임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취임한 한 행장은 취임 직후인 1월 1일 새해부터 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를 전액 면제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10일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객의 청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시행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갈 태세였다.

회사 측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취지"라며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최근 그룹사의 통합 데

이터 플랫폼인 '신한 원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룹의 데이터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목표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주요 그룹사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하고 사용자 맞춤형 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차별적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일하는 문화 확산' 및 '금융산업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주도한다. 또 그룹사 고객을 심층 분석하고 데이터를 고도화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신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 가치 극대화를 추진한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7일 (화) 음력: 1월 1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펴 보아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의견상의 화해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다든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취업 운은 좋은 날이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함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하기 쉽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 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돼지피와의 거레에서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위험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 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도 따른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엔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마음을 삼가 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날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자신만 보이는 날이다.

금융

스포츠동아 2023년 2월 7일 화요일 11

보험료 월 최대 1만5000원 할인 롯데카드 '캐롯손보 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캐롯손해보험과 손잡고 '캐롯손해보험 롯데카드'(사진)를 내놓았다. 카드에 보험료 자동납부 연결 시 보험료를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해준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 시 1만 원, 70만 원 이상 시 1만5000원 할인된다. 28일까지 이 카드에 보험료 자동납부 연결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일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 시 1만3000원, 70만 원 이상 시 1만7000원을 할인해준다. 또 28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3월 31일까지 이 카드도 8만 원 이상 결제 시 8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연다.

회사 측은 "고물가 시대를 맞아 보험료 등의 고정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캐롯손해보험 이용 고객은 이 카드로 매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즈니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롯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프리미엄 비즈니스 카드'와 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롯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루 비즈니스 카드' 등으로 구성했다.

NH농협은행 'N키즈 금융학교' 대상자 모집

NH농협은행이 13일부터 'N키즈 금융학교' 대상자를 모집한다.

N키즈 금융학교는 단기 교육 방식을 보완한 체계적인 4단계 연간 금융 교육이다. 지역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및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1단계 월별 금융교육특강 참여(3~6월), 2단계 청소년 금융 교육센터의 금융·직업 체험 참여(7월), 3단계 금융 교육 리부 등 후기 이벤트 참여, 4단계 금융 골든벨 참여(8월)로 구성했다. 서울 지역은 초·저·초고 각 50명 이내, 강원·경북·울산 지역은 초·저·초고 10명 이내로 선착순 운영한다. 신청은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금융교육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7일(화)		
서울 20/10	인천 20/10	춘천 20/0	0 10	0 7	-3 9
강릉 30/70	대전 20/20	전주 20/10	3 8	-2 11	-1 12
광주 20/10	대구 20/20	부산 30/20	0 14	-1 13	6 14
창원 30/20	제주 30/20	지역	2 13	9 12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0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인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